- 우리를 시험에 빠트리는 윤리적 상황 -

윤리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윤리적 판단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시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 때와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종종 윤리적 판단을 다르게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 윤리에 대한 담론들을 진행할 때면,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과는 무관한 제3자의 입장을 전제해야 한다.

- 윤리의 정의 -

윤리적 판단은 실제의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 윤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당위적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 명제 $\begin{cases} \text{사실명제} : \sim \text{이다(과학)} \\ \text{당위명제} : \sim \text{해야 한다(윤리)} \end{cases}$

• 당위명제는 사실명제와 무관하게 그 문장 자체의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즉 윤리적 판단은 실제의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 도덕은 실천적인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하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도덕이라 하고, 그런 규범과 규칙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

- 의무론과 목적론 -

주어진 의무를 고려할 것인가, 미래의 결과를 고려할 것인가

• 윤리라는 전체 분야를 딱 반으로 나누면 반은 의무론, 나머지 반은 목적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의무론은 의무나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윤리로 보고, 목적론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로 본다.

•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론자들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나의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행동한다.

-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법 -

절대적인 윤리 법칙을 찾아라

• 의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칸트이다. 칸트는 18세기 사람으로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이 그의 유명한 저서이다. 여기서 비판은 무엇인가를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순수이성은 인간의 감각, 지각, 지성적 능력을 말하므로, 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천이성은 무엇인가 실행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윤리를 말한다. '실천이성비판'은 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판단력비판'은 아름다움, 미에 대한 것으로 미학을 제시한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실천이성비판'의 핵심적 논지가 도니다.

• 절대적 도덕법칙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칸트가 제시한 것은 '정언명법'이다.

• '정언명법'의 내용은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정도가 되겠다. 단순화하면, 정언명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계산 기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언명법으로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고, 그 도덕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다.

- 목적론과 공리주의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하라

•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입장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19세기 무렵에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윤리적 견해로, 벤담과 밀이 대표적이다. 공리주의는 단적으로 말해, 윤리의 궁극적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초점에 맞춘 사상이다. 여기서의 이익은 쾌락이나 행복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 벤담을 행복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양적 공리주의), 밀은 행복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질적 공리주의)

• 벤담의 공리주의는 단순하고 명쾌한 반면, 윤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설명인 듯 해서 윤리라고 하기에 민망하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공리주의를 세련되게 만들어준 인물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 쾌락과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밀은 쾌락과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나 평등 등의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 하이에크와 롤즈 -

어떤 사회가 윤리적인 사회인가

• 하이에크는 20세기에 활동했으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했다.지식이나 기술이 각기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서 경쟁하고 그럼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의 기본 전제였다.그렇기에 우리는 그 게임이 공정했는지, 혹시나 게임 참가중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게임의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결과가 아무리 큰 격차를 발생시켰다 해도 그 성과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이 생각은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가깝다.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면,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를 국가가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이러한 견해와 대비되는 롤즈는 미국에서 태어나 하이에크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인물로, 대표적인 책으로는 '정의론'이 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 롤즈의 생각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과적으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과 개개인들의 이익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